

창직 · 창업의 현장 ● 문화관광해설사
강호정 선생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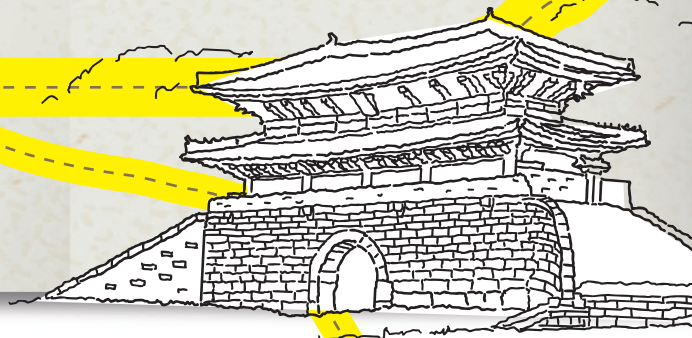
재미와 교양을 동시에!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강호정** 선생님

유명 관광지를 찾기 전, 우리는 보통 인터넷을 통해 그곳에 관한 정보를 미리 찾아보곤 한다. 이는 외국인이나 내국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모를 하고 머리 속에 집어넣은 것들도 막상 현장에 직접 와서 다시 꺼내보려 하니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그럴 때는 딱 옆에서 편하게 이야기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이들이 있다. 바로 문화관광해설사이다. 이 일에 대해 생소한 독자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문화관광해설사는 도보관광 해설을 받고자 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 상세하고 알기 쉽게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이다. 전국 각 지역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데, 필자는 그 중 서울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호정씨를 만났다.

서울문화관광해설사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도보관광 코스를 안내해준다. 도보관광은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를 서울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을 들으며 도보로 탐방하는 관광 프로그램이다.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를 [역사·문화 중심지역] [전통문화 중심지역] [근대문화중심지역] [생태복원지역] [전통마켓 지역] [주말운영 테마코스]의 6개 테마로 분류하여 경복궁, 창덕궁, 창덕궁, 경희궁, 북촌한옥마을, 청계천, 남산성곽, 몽촌토성, 성균관 등 17개의 일반코스, 4개의 상설코스, 3개의 테마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총 24개 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안내 언어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또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총 4개의 언어로 신청 가능하다. 강호정 해설사는 이 중 영어권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은 북촌한옥마을코스의 만남의 장소인 안국역 3번 출구였다. 필자는 인터뷰와 동시에 직접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북촌 한옥마을 도보관광을 참여해보았다.





Q 문화관광해설사,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 자세한 소개 부탁한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서울에 있는 유적지를 서울의 역사, 문화, 생활에 대해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설명하는 자원봉사단체이다.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여성일 경우, 50대 내외의 연령대에 자녀들이 어느 정도 다 크고 난 뒤 여유가 생기신 분들, 남성일 경우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다. 왜냐하면 이 일이 주로 아침과 오후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직업을 가진 분이라면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중에는 평소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다른 언어권 해설사인 경우, 현직에 있었을 때 그 언어권과 관련 있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에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역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은 분들이다. 그래서 역사 강의도 부지런히 다니시고 동아리 모임 등을 통해 전문지식을 나누고 방송대 등에 등록하면서 자신의 분야를 점점 넓혀 가신다. 그 경험을 책으로 내신 분들도 계신다.

Q 서울문화관광해설사 내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

한 달 전에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3시 중 해설사들은 자신이 가능한 시간을 네트워크 상에 자율적으로 체크한다. 각 해설사들의 가능한 시간이 정해지면 컴퓨터 자동매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청자와 자동으로 매칭된다. 그러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오늘처럼 각 코스의 정해진 만남의 장소에서 해설사와 신청자가 만나 투어를 시작한다.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경주처럼 관광 유적지마다 해설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2~3시간 정도 각 코스를 해설사와 동행해 걸어 다니면서 관광유적지를 둘러보게 된다. 그래서 이들도 서울도보관광이다. 현재 서울문화관광해설사는 약 240여 명이 활동하고 계신다. 하루 진행되는 투어는 대략 20~30여건이다. 모든 해설사분들이 24개의 코스를 모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총 24코스 중 자신이 관심이 있고 할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한다. 나 같은 경우에는 21개의 코스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장애인 해설사를 모집하여 해설사 관련 교육을 마치고 현재 8분의 장애인해설사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다.

Q 문화관광해설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나?

2002년에 남편이 인도네시아 주재원이 되면서 가족이 모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게 되었다. 둘째 아이가 당시 12개월이었는데 2007년까지 약 5년을 그 곳에서 살았다. 처음 3년 동안은 아이를 키우느라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 둘째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서 따로 할 일을 찾아보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인도네시아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Indonesian Heritage Society)'라는 자원봉사단체를 알게 되었다. 그 단체의 박물관 팀에 들어가,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물관에서 약 2년 동안 자원봉사자로 한국어와 영어 해설사 자원봉사를 했다. 그 때부터 자원봉사 일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관심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던 중, 2010년에 우연히 북촌한옥마을 투어를 하다가 문화관광해설사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어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바로 직접 신청까지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해설사가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었나?

나는 평상시 역사에 관심이 많아 역사책이나 역사 투어를 줄곧 참가했었다. 뿐만 아니라 영어권 지원을 위해 언어 공부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다. 내가 생각할 때, 문화관광해설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역사에 대한 풍부한 이해, 타인을 배려하는 자원봉사 정신과 관광서비스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언어능력이 있다면 외국어권 해설사로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언어권 관련이나 자원봉사 관련 경력이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나 또한 이 일을 하기 전에 양천구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교통기초질서를 설명하는 자원봉사를 2년 정도 했었다. 자카르타 박물관의 봉사활동과 양천구 어린이 교통공원의 봉사활동이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일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서울시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는 1년에 한 번 모집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하면 3~4개월에 걸쳐 100시간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시험과 프레젠테이션을 통과하면 해설사가 된다.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그런데 지원할 때 명심해야 할 점은 한국어 언어권이 가장 경쟁률이 높다는 점! 서울 문화관광해설사가 2003년에 시작된 이래 10년 동안 소문도 꽤나 많이 나서 특히나 한국어 분야는 경쟁력이 엄청 높다. 면접 시 질문도 어렵고 통과하기도 어렵다. 역사 선생님이셨거나 역사 박물관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여럿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대단하다. 중국어가 가장 경쟁률이 적은 언어권이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중국어 해설 요청이 많은 반면 해설사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중국어 관련된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셨으면 한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마냥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나?

물론 있다. 가끔 예약한 관광객들이 만나기로 한 장소에 안 나올 때가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안내하는 무료투어다 보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못할 경우에는 센터나 해설사에게 직접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연락하게끔 알려드린다. 나 같은 경우,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몽천토성에 한 시간 반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관광객이 오지 않은 적도 있다. 받은 연락처로 연락해 보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잊어먹었다는 답을 듣기도 한다. 그럴 때는 무척 허탈하고 화도 난다. 물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컴퓨터로 예약한 후 단기 여행으로 온 여행객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연락처가 없다. 따로 연락할 방법조차 없다. 물론, 미리 취소 메일이나 전화를 하는 외국인들도 있지만 간혹 안 나타나는 외국인 관광객도 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서로 간의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많이 속상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적은 언제인가?

해설사의 역할은 역사에 대해 '재미있는 해설'을 하는 사람이다. 관람객들은 흥미를 가지고 '구경'은 사람이자 '연구'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투어를 하면서 흥미를 좀 더 이끌어내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설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투어가 끝나고 '재미있었습니다.',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 내 해설을 들은 여행객들이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보람을 느끼게 한다. 또 말씀이 없어도 음료수를 건네는 손길에서 '오늘 투어가 이분들께 유익했구나.'하는 느낌도 받는다. 어떤 때는 가끔 관람객들이 팁을 주시려고 할 때도 간혹 있다. 하지만 우리 상업적 관광가이드가 아니라 자원봉사자이기에 정중히 거절한다. 그래도 그 마음만은 참 고맙다.



Q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터득한 '나만의 노하우'도 있을 법 한데?

같은 역사 선생님이더라도 수업방식이 다르듯이 해설사마다 각자 고유의 스타일과 해설방식이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나에 따라 해설 방향을 다르게 한다. 예를 들어 내국인 관광객에게 역사 지식 중심으로 해설을 하는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우리나라 세세한 역사와 왕의 구분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를 주로 비교한 사진이나 예를 준비한다. 한중일의 대표 건축물의 처마, 젓가락, 도자기, 차 문화 등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한중일의 젓가락을 꼭 보여주면서 설명한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도 무척이나 재미있어한다. 또 역사 사건 중심보다는 문화와 관련된 상징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끔 한다. 그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쉽고 듣는 이들도 흥미로워 한다. 이들의 관심과 흥미가 우리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는, 또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문화관광해설사의 매력이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눌 수 있다는 뿌듯함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떤 분의 투어를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관심으로 오늘날의 내가 있게 되었듯이 나도 다른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평소 역사책도 부지런히 읽고, 매일 신문에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고 방송대 문화교양학과도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한다. 또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가능한 시간을 활용하면서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투어를 하면 저절로 걷기운동이 되어 별도의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 건강도 지키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투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이에 답변을 하면 대부분 어렵다고들 한다. 역사공부가 어렵지 않느냐고 한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 24개 코스를 들어본다면 충분히 자격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본인이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고 무언가를 남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며 사람 만나는 것을 즐겁게 여긴다고 생각된다면 자신 있게 도전해 보길 바란다. 시작이 중요하다.

| 박세희 (KOCCA 대학생기자) |

